Since.1969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 소식지



가톨릭 메디컬타임스

No.2314 2025.5.7

창 간 1969년 11월 14일 발행인 이화성 편집인 민창기 편집 기회 가톨릭증앙의료원 홍보팀 E-mail cmcpr@catholic.ac.kr 소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Tel 02/3147-9474 Fax 02/3147-9531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 간호대학 · 서울성모병원 · 여의도성모병원 · 의정부성모병원 · 부천성모병원 · 은평성모병원 · 인천성모병원 · 성빈센트병원 · 대전성모병원

"주님, 프란치스코에게 영원한 안식을 주소서."



프란치스코 교황 2025년 4월 21일 선종

프란치스코 교황 성하의 유언

'자비로이 부르시니'(Miserando atque Eligendo) 중 일부 발췌

"저를 사랑해 주셨고 저를 위하여 계속 기도해 주실 분들에게 주님께서 마땅한 상급을 내려 주시기를 빕니다. 제 삶의 마지막에 맞이하는 고통을, 온 누리의 평화와 만민의 형제애를 위하여 주님께 봉헌합니다."

> 성녀 마르타의 집에서 2022년 6월 29일 프라치스코



프란치스코 교황 약력

1936년 12월 17일 아르헨티나부에노스아이레스출생

1958년 3월 11일예수회 입회1969년 12월 13일사제 수품1992년 6월 27일주교 수품

1998년 2월 28일 부에노스아이레스 대교구장 임명

2001년 2월 21일 추기경서임

2005-2011년아르헨티나주교회의 의장2013년 3월 13일제266대 교황으로 선출2013년 7월 5일첫 회칙「신앙의 빛」 반포

2014년 8월 14-18일 대한민국 사도 방문, '윤지충 바오로와 동료 123위' 시복식 거행

2015년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4차 정기 총회 소집(주제: 가정) 2015년 12월 8일 자비의 특별 희년 선포(2016년 11월 20일까지)

2018년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5차 정기 총회 소집(주제: 청년)

2021년 세계주교대의원회의 제16차 정기 총회 소집(주제: 시노달리타스)

 2022년 3월 19일
 교황청 개혁안을 담은 교황령 「복음을 선포하여라」 반포

 2024년 10월 24일
 마지막 회칙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반포

2024년 12월 24일 정기 희년 선포(2026년 1월 6일까지)

2025년 4월 21일 선종





갑상선암정밀 집단하는 NTRK 유전자 융합 집단 알고리즘 개발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정찬권 교수팀. 최신 기법으로 유전자 융합과 조직병리학적 특징 분석



정찬권(왼쪽) · 이현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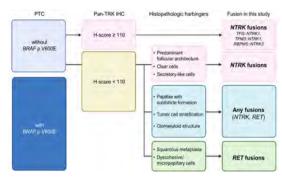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 원 기초의학사업 추진단 초정밀의 학사업단 정찬권 교수(교신저자, 서울성모병원 병 리과)와 이현 교

수(제1저자, 서울성모병원 병리과) 연구팀이 갑상선암의 정밀 진단을 위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하고, 이를 활용한 맞춤 형 유전자 검사법의 유효성을 입증했다.

갑상선유두암종은 기장 흔한 갑상선암의 한 종류로, 일부 환자에게서는 NTRK 유전자 변이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는 특정한 돌연변이가 생긴 경우 암을 유발할 수 있다. 연구팀은 먼저 BRAF p.V600E 변이가 없는 갑상선유두 암종을 대상으로 pan-TRK(면역조직화학염색법)을 사용해 암세포에서 NTRK 유전자 변이를 찾았으며, 차세대염기서열 분석 기술을 활용해 다양한 유전자 융합과 조직병리학적 특징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했다. 그 결과, pan-TRK에서 H-score(디지털병리 이미지에서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의 분석을 통해 세포 내 단백질 발현 정도를 수치화한 정량적지표)가 높은 경우 NTRK 유전자 융합 가능성이 크다는 점과 NTRK 융합암종에서 나타나는 조직학적 특징을 확인했다.

또한 연구팀은 pan-TRK 면역염색에 양성 반응을 보인 일부 환자들에게서 NTRK 유전자 변이뿐만 아니라 RET 및 BRAF 유전자 융합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음을 밝혔으며, RET 융합암종에서의 조직학적 특징을 관찰했다.

한편, 기초의학사업추진단의 지원을 받은 이번 연구는 갑



▲NTRK 융합 유전자 검출을 위한 진단 알고리즘 개발 모식도

상선암 병리학 분야의 권위 있는 국제 학술지 《Endocrine Pathology》(IF=11.3) 3월호에 게재됐으며, 대한갑상선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연제상을 수상하는 등 학계에서도 큰 관심을 받고 있다.



세척액 농도로 갑상선암 림프절 전이 진단하는 新 검사법 제시

은평성모 이정민·서울성모 임동준 교수팀, 진단 정확도 향상시키는 보조 지표 활용 기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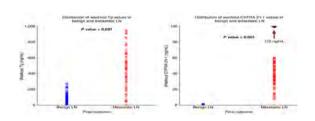
이정민(왼쪽) · 임동준 교수

가톨릭대학교 은평성모병원 이 정민 교수(제1저 자)와 서울성모 병원 임동준 교 수(교신저자) 연 구팀이 연구팀이 감상성암 환자에

서 세침흡인세포검사(FNAC) 과정에서 얻은 림프절 세척액 내 CYFRA 건-1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림프절 전이 여부를 보다 정 확히 진단할 수 있음을 입증했다. 이 검사법은 갑상선암 환자 의 림프절 전이를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어 향후 임상에 서 적용시 불필요한 림프절 절제 수술을 줄이고 환자 맞춤형 정밀 치료 전략을 세우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에는 갑상선암의 림프절 전이를 평가하기 위해 세침 흡인세포검사(FNAC)와 세척액 내 thyroglobulin(washout Tg) 농도 측정을 병행해 왔으나, 두 검사 결과가 불일치할 경우 진단이 불확실해지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특히 washout Tg가 낮게 측정되는 Tg-negative 환자나, 세침흡인세포검사 결과가 비진단적으로 보고된 상황에서는 림프절 전이 여부 판단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연구팀은 세척액 내 cytokeratin 19 fragment(washout CYFRA 21-1)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기존의 진단 불확실 상황에서 정확도를 높이는 보조 지표로 활용 가능함을 제시했다. 연구팀은 세침흡인세포검사 후 Washout CYFRA 21-1 농도를 측정하는 방식이 진단 정확도를 높



일 수 있다는 가설을 바탕으로, 단일기관의 기존 연구(2019 Cancers)를 기반으로 새로운 환자 집단을 대상으로 한 후향적 분석을 통해 그 신뢰성과 재현성을 재확인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암 분야의 세계적인 국제 학술지 《Clinical Cancer Research》(IF=10.4)에 최근 게재되었으며, 생명과학 분야의 우수 논문 커뮤니티인 '한빛사(한국을 빛내는 사람들)'에도 선정되며 학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



다학제 연구로 희귀 심장 아밀로이드증 집단성공

서울성모 혈액병원 중심 다학제팀, 영상의학-핵의학 융합 진단법 통해 질환 규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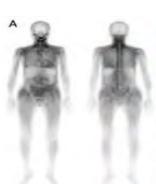
오주현(왼쪽) · 윤종찬 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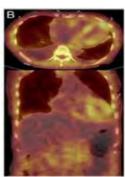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아 밀로이드증 다학 제 진료팀(혈액 병원 민창기 교수 (공동저자, 혈액 내과), 핵의학과 오주현 교수(제1

저자), 순환기내과 윤종찬 교수(교신저자))이 희귀 질환 중 하나인 '심장 아밀로이드증' 환자를 조기에 정확하게 진단한 사례를 발표했다. 이번 연구는 다학제적 접근을 통해 기존 방식으로 진단이 어려웠던 '복합형 심장 아밀로이드증'을 영상의학과 핵의학을 융합한 정밀 진단법으로 규명한 성과다.

아밀로이드증은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축적돼 장기 기능을 저하시키는 질환으로, 심장 아밀로이드증은 병이 상당히 진행 된 후에야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 심장 아밀로이드증은 '트랜 스티레틴(ATTR)'과 '경쇄(AL)' 두 가지 형태로 나뉘는데 이번 연구에서는 두 가지 유형이 동시에 존재하는 매우 드문 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기존 방식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렵다.

연구팀은 혈액병원, 순환기내과, 핵의학과, 신장내과, 영 상의학과의 협력을 통해 70대 환자의 심장 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핵의학 영상 검사와 조직 검사를 분석했다. 특히 99mTc-DPD 뼈 스캔과 18F-Flumetamo(플루트메타몰) PET/CT 영상 기법을 활용하여 각각의 단백질이 심장에 어떻게 침착되는지를 정밀하게 평가했다. 그 결과, 두 가지 유형의 아밀로이드가 동시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연구팀은 99mTc-DPD 뼈 스캔과 18F-Flumetamo(플루트메타몰) PET/CT 영상 기법으로 각각의 단백질이 심장에 어떻게 침착되는지를 평가했다

한편, 이번 연구는 핵의학 및 영상의학 분야의 국제 학술지 《Clinical Nuclear Medicine》(IF=10.0)에 게재됐다.



류마티스관절염 미토콘드리아 조절 치료 타깃 발견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조미라 교수팀. 미토콘드리아 내 STAT3 단백질의 새 작용 기전 규명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 워 기초의하사언 추진단 합성생물 학사업단 조미라 교수(교신저자, 가톨릭대학교 의 과대학 병리학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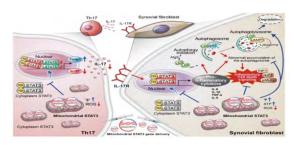
실)와 이선영 박사(제1저자) 연구팀이 류마티스관절염의 원인 과 진행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면역세포인 Th17 세포 와 활막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 내 STAT3 단백질의 새로운 작 용 기전을 규명했다.

류마티스관절염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정상적인 관절 조 직을 공격하면서 발생하는 자가면역질환이다. 특히, Th17 세포

라는 면역세포와 관절을 감싸고 있는 활막세포의 과도한 염증 반응이 질병의 진행을 촉진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전사인자'로 알려져 있는 STAT3는 활 성화되면 세포 내 핵으로 이동하여 염증성 사이토카인과 혈관 신생 단백질의 발현을 촉진한다. 이러한 과정은 류마티스관절 염의 염증 반응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연구팀은 STAT3가 단순히 핵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의 에너지를 생산하는 기관인 미토콘드 리아로 이동했을 때는 반대로 염증을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 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미토콘드리아 내로 이동한 STAT3는 미토콘드리아의 '막전 위'를 증가시키고, 활성산소(ROS)의 생성을 감소시켜 면역 반 응을 조절한다. 특히 Th17 세포의 분화를 억제하고, 염증성 사 이토카인의 과다 분비를 막는 효과를 보였다. 이는 기존에 밝



▲미토콘드리아 내 STAT3 역학 규명 모식도

혀지지 않았던 기능으로 STAT3가 핵과 미토콘드리아에서 서 로 다른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발견이다.

한편,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의 지원을 받은 이번 연구는 병리학 분야의 저명한 국제 학술지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IF=9.5) 최근호에 게재됐다.



면역 거부 반응 최소화한 유도만능줄기세포 개발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주지현 교수팀, 세포 치료 한계 극복해 난치성 질환 치료에 활용 기대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기 초의학사업추진단 첨단세포치료사업 단의 주지현 교수(서울성모병원 류마 티스내과) 연구팀이 면역 거부 반응을 최소화한 '저면역원성 유니버설 유도 만능줄기세포(iPS 세포)' 개발에 성공 했다. 이번 연구는 ㈜YiPSCELL의 김주련 이사, 남유준 부사장이 공동 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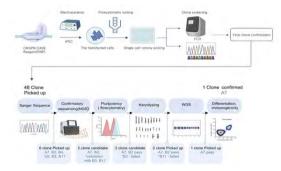
1저자로, 전도영 연구원, 최유진 연구원, 최선주 연구원, 홍창표 이사, 김시영 연구원, 정혜린 이사, 박나래 이사, 성균관대학교 바이오헬스규제과학과 손여원 교수가 공동 저자, 주지현 교수 및 가톨릭대학교 유도만능줄기세포 응용 연구소 임예리 연구교 수가 공동 교신저자로 참여했다.

줄기세포는 신체의 여러 조직으로 변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세포다. 특히, 유도만능줄기세포(iPS 세포)는 피부나 혈액 등의 체세포에 특정 유전자를 도입해 인체 내 다양한 조직으로 분화 할 수 있다. 그러나 환자의 몸에 이식될 경우, 면역 시스템이 이 를 외부 물질로 인식하여 공격하는 '면역 거부 반응'이 발생할 수 있다. 이는 세포 치료가 실질적으로 활용되는 데 있어 가장 큰 걸림돌 중 하나였다

연구팀은 최신 유전자 편집 기술인 CRISPR-Cas9 유전자 가위 기술을 이용해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 주요 유전자들을 조 작했다. 특히. 우리 몸에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인간 백혈구 항원(HLA)' 유전자인 HLA-A, HLA-B 및 HLA-DR 알파(DRA)를 선택적으로 제거하여 면역 반응을 최소화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세포 치료의 한계를 극복하고, 맞춤형 치료 (cell therapy) 시대를 앞당기는 중요한 성과로 평가된다. 면역 거 부 반응을 줄인 유도만능줄기세포는 장기 이식, 난치성 질환 치료



▲유도만능죽기세포 단계 모신도

등 다양한 의료 분야에서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한편,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의 지원으로 진 행된 이번 연구는 국제 학술지 《Experimental & Molecular Medicine》(IF=9.5) 최근호에 게재됐다.



비만 여성의 세 자녀 이상 출산. 제2형 당뇨병 위험성 증가시킨다

성빈센트 겐유끼·윤재승 교수팀, 아시아 여성·비만 또는 복부비만일수록 주의 필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 산 부인과 겐유끼 교 수(제1저자)와 내 분비내과 윤재승 교수(교신저자)가 다자녀를 출산한 비만 여성일수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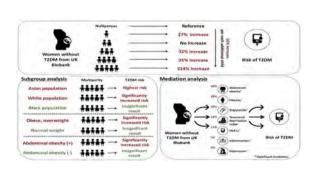
2형 당뇨병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

연구팀은 영국의 대규모 코호트인 UK Biobank를 활용해 40~69세 여성 241,159명을 대상으로 출산 경험과 2형 당뇨병 발생 위험 간 관계를 분석했다. 특히 비만과 복부비만, 인종, 사 회경제적 변수 등의 요인이 출산과 당뇨병 발생에 미치는 영향

을 보다 심층적으로 분석했다. 출산과 당뇨병 발생 위험 관계에 만 초점을 맞췄던 기존 연구들의 한계점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그 결과, 세 자녀 이상 출산한 여성에서 2형 당뇨병 위험이 유의미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출산 경험이 없는 여성 과 비교했을 때, 두 자녀를 둔 여성은 2형 당뇨병 위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출산 횟수가 세 명 이상이면 2형 당뇨병 위 험이 높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 이러한 경향은 유전요인, 생 활습관, 체성분, 사회경제적 변수를 보정한 후에도 유지됐다.

특히 아시아 여성, 비만 또는 복부비만 여성에게서 이러한 연관성이 더욱 뚜렷하게 관찰됐다. 복부비만은 출산과 당뇨병 위험 간 관계의 약 49%를, 체질량지수(BMI)는 약 38%를 중재 하는 요소로 확인됐다. 단, 다산을 했더라도 정상 체질량지수 (BMI)와 허리둘레를 가진 여성에서는 2형 당뇨병 발병 위험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사회경제적 요인, 만성 염증 반응, 우울증이 출산 횟수와 제2형 당뇨병 위험 간 연관성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매개 요인으로 밝혀졌다.

한편, 이번 연구는 저명한 국제 학술지《Diabetes & Metabolism Journal》(IF=6.8)에 최근 게재됐다.

NO. **2314**



유전체 정밀 의학의 길을 닦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미생물학교실 정연준 교수



유전체 연구 35년, 정연준 교수의 길

"단순히 연구를 넘어서 사람을 위한 과학 이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장인 정연준 교수 는 한국 유전체 정밀 의학 분야의 대표 주자 다.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35년간 오직 유전 체 연구에 매진해 온 그는, 영국 Sanger 연구 소에서의 연수를 계기로 한국에 '염색체변이' 개념을 도입하고 국내 변이체 연구의 기반을 마련했다. 이를 바탕으로 유전체 빅데이터 전 문인력 양성, 데이터엔지니어 사업 등 차세대 연구자 양성에도 심혈을 기울여 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그는 이머징 감염병 을 조기에 진단하고 제어하는 기술 개발에 집 중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신속 분자 진단법을 개발해 검사 시간을 단축했으며, 실 시간 유전체 추적 기술로 감염 확산 방지에 기여했다. 또한 항생제 내성 감염 및 패혈증 조기 진단 기술도 개발하여, 향후 또 다른 감 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국가적 대응체계 구축 에 이바지하고 있다.

그는 현재 한국유전체학회(KOGO) 회 장을 맡고 있으며, Nature Genetics, Cell, Gastroenterology 등 세계적 학술지에 240 편 이상의 논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러한 연 구성과는 단순한 이론을 넘어서 임상에 적용 되고 있으며, KOGO 대상(운봉상)을 수상하 며 그 업적을 인정받았다.



💁 교육자이자 연구자로서의 일상

정 교수는 현재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미 생물학교실에서 의학미생물학을 강의하며, 대학원생들의 연구를 지도하고 있다. 동시에 가톨릭중앙의료원 기초의학사업추진단 소 속 초정밀의학사업단장으로도 활동 중이다. 그는 CMC 내 구성원들에게 유전체 분석기 술을 교육하고, 연구 자문과 공동연구 매칭 등을 지원하며 정밀 의학의 생태계를 다져나 가고 있다.

"기초의학사업추진단의 핵심은 순수 연구 에만 머무르지 않고, 임상에 어떻게 기여할 수 있을지를 고민하는 데 있습니다."



🖄 초정밀의학사업단의 세 가지 축

초정밀의학사업단은 정연준 교수의 리더 십 아래 암, 감염병, 복합질환이라는 세 가지 큰 축에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단일세포 다중오믹스 분석 기술을 통해 암의 초기 발생 기전과 항암제 내성 획득 메커니즘을 밝히고 있으며, 암 오가노이드 개발도 활발히 진행 중이다.

"단일세포 수준에서 인체조직을 분석한다



●● 연구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주제를 보고 가슴이 뜨거워진다면, 이미 준비가 된 것입니다. ●●

는 것은 모든 의과학자들의 꿈이었고, 이제 그 꿈이 기술로 현실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조류독감과 같은 이머징 감염병 대 응을 위한 유전체 진단 기술, 침습성 진균감 염 진단법 개발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여기 에 심근경색 후 심부전 예방을 위한 분자 기 술 개발도 주요 연구 중 하나다. 코로나19 팬 데믹 발생 이후 정 교수는 이머징 감염병을 조기에 진단하고 제어하는 연구에 집중해 왔 다.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한 신속 분자진단 법을 개발하여 검사 시간을 단축했고,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한 실시간 유전체 추적 기술도 구축했다. 또한, 팬데믹과 같은 공중보건 위 기에 신속 대응할 수 있도록 항생제 내성 감 염 및 패혈증 조기 진단 기술도 함께 개발하 고 있다. 이러한 기술은 향후 또 다른 감염병 대유행에 대비한 국가적 대응체계 구축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연구 성과와 임상 적용

정 교수는 연구 결과가 실제 진료 현장에 쓰 이도록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다. 서울성모병

원 병리과와 공동 개발한 갑상선암 유전자 패 널은 현재 진단에 적용되고 있으며, 감염내과, 진단검사의학과와 협력해 침습성 진균감염 분자검사법을 개발해 서울성모병원에서 임상 적용 준비 중이다. 피부과와 공동 개발한 피부 진균 분자진단법, 생화학교실과 함께 만든 결 핵 분자진단기술은 임상시험 단계에 있다. 이 처럼 기초와 임상의 가교 역할을 수행하는 것 이 초정밀의학사업단의 핵심 철학이다.

"기초와 임상은 바늘과 실의 관계입니다. 하나가 없으면 다른 하나도 제 기능을 할 수 없습니다."



🖄 의과학 융합연구의 의미와 도전

정연준 교수는 기초의학과 임상의학의 융 합 없이는 환자 중심의 연구로 나아갈 수 없다 고 말한다. 실제로 많은 연구자들이 그의 주 도하에 이 같은 융합연구에 참여하고 있으며, CMC 전체 연구 수준 향상을 이끌고 있다.

"정말 반가운 건, 요즘 들어 젊은 연구자들 중 의과학에 대한 열정을 가진 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미래가 기대됩니다."

그러나 최근 2년간 이어지고 있는 의정갈 등은 연구 환경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는 조속한 해결을 바란다며, 진료와 연구 의 정상화 없이는 의료와 과학의 미래도 어렵 다고 강조했다.



💁 포부와 꿈, 그리고 미래

정 교수는 장기적으로 СМС가 Massachusetts General Hospital 같은 글로벌 수준의 메디컬 클러스터로 성장하길 바란다. 이를 위해 지금은 10개 이상의 임상 적용 가능한 혁신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하 고있다.

"우리의 기술이 산업으로 이어지고, 산업 이 다시 연구로 환류되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 니다. 이것이 제가 그리는 CMC 메디컬 허브 의 미래입니다."



교육자 정연준의 철학과 후배 연구자 들에게 보내는 메시지

그는 학생들과의 소통에서 '진정성'을 강조 한다. 특히 의정사태로 인해 상처받은 학생 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마음과 마음의 진솔한 연결 이 교육의 본질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학생들 도 연구도 그렇게 대하고 있다고 한다.

"연구는 결국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보는 일입니다. 주제를 보고 가슴이 뜨거워진다 면, 이미 준비가 된 것입니다."

정 교수는 즐겁게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이 결국 좋은 결과를 낳고, 행복한 연구 자의 삶으로 이어진다고 믿는다. 그는 후배 연구자들이 각자의 마음속 울림을 따를 수 있 기를 바란다고 했다.

정연준 교수의 삶은 과학과 교육, 그리고 사람을 잇는 다리였다. 그의 도전은 아직 현 재 진행형이며, 그가 그리는 정밀 의학의 미 래는 분명히 더 많은 생명을 살릴 기술로 이 어질 것이다.





합주에서 찾은 '함께'의 가치, 나를 충전하는 시간이되다

여의도성모병원 간호부 김정희 간호사



"제 첼로 이름은 '제제'입니다. 『나의 라임 오렌지나무』에 나오는 주인공 제제예요. 어 린 시절 저에게 큰 감동을 주었던 문학 속 인 물이자 소울메이트였던 제제의 이름을 첼로 에 붙여 주었습니다."

애정 어린 말씨로 첼로를 소개하는 김정 희 UM은 여의도성모병원 12층 병동의 Unit Manager로서 병동 운영의 전반을 책임지 는 베테랑 간호사다. 2002년 여의도성모병원 혈액내과 병동에 입사한 김정희 UM은 풍부 한 임상경험과 가정간호 전공, 상처장루 간호 및 정신종양학 전문 과정 이수 등 다양한 전 문성을 쌓아 현재는 VIP 환자, 격리환자, 임 종 및 중환자 등 여러 환자들을 돌보는 동시에 CMC핵심가치교육 소통의창 2.0 사내강사, 간호대학 외래교수까지 다채로운 활동을 하 고 있다. 그런 그가 바쁜 와중에도 시간을 쪼 개어 놓치지 않는 일이 있다면, 첼로 활을 잡 고 낮고 감미로운 음률을 울리는 일이다. 특 히 동료 교직원들과 함께 연주하면서 병원의 동료와 환자들에게 음악을 선물하고 있다.



첼로 연주는 언제,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10년 전쯤, 아이들도 어렸고 저는 학위과 정을 하던 중이라 매우 바쁘게 살아나가던 중이었어요. 지금 함께 연주하고 있는 김지 선 간호사가 바이올린을 메고 퇴근하면서 외 부의 오케스트라에 연주를 간다는 이야기를 듣고 너무 멋있어 보였죠. '나도 언젠가는 저 렇게 악기를 배우고 싶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이후 2019년 여름에 학위과정을 마 치고 나에게 주는 선물이라는 명분으로 첼로 를 사고 아이들에게도 현악기를 배우게 하 며 저도 본격적으로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왜 첼로였을까요? 첼로의 깊고 묵직한 울림 에 마음이 끌렸고, 첼로 현이 그어질 때 나는 중저음의 소리가 너무 설레었고 첼로를 안고 있으면 누군가에게 기대고 있는 느낌이 들었 던것같아요.

여의도성모병원에서 교직원들과 함께 연주단을 꾸려 재능 기부를 하고 계신다고요? 어떤 공연을 진행하시 나요?

저희 연주단은 병원 교직원들로 구성되어 있고 가칭 '음악결사대'라고 합니다. 결사대 라는 이름이 뭔가 비장해 보이는데, 결사대 의 의미는 '하느님의 사랑과 평화를 전하고 자 하는 결의로 무장한 연주단'입니다. 처음 시작은 김은기 영성부원장 신부님께서 여의 도로 오시면서 시작되었죠. 신부님께서 첼로 를 매우 사랑하시고 연주도 수준급이신데 작 년 성모의 밤을 시작으로 성탄 연주를 함께 하자고 해주셨고 저는 첼로를 잠시 쉬고 있 던 터라 많이 망설였지만 악보를 받아들고는 연주에 참여하기 위해 과외도 받고 학원도 다니며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부족했 지만 호스피스병동에서의 공연과 성탄미사 를 통해 평소보다 더 밝고 기쁜 성탄을 맞이 할 수 있었습니다. 아직 저희 음악결사대가 결성된 지 오래되진 않아서 많은 활동을 하 진 못했지만 부활, 성모의 밤, 성탄미사에서 연주를 하고, 호스피스병동 환자들을 위한 연주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연주를 하면서 인상 깊었던 순간이 인나요?

호스피스 병동에서의 연주가 가장 인상 깊 었습니다. 너무 긴장해서 손과 발이 떨리고, 악보가 흐릿해지는 느낌이었지만, 환자, 보 호자분들과 동료들의 눈빛에서 용기를 얻었 습니다. 연주 도중 환자분들이 박자에 맞춰 손발을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울컥하기도 했 습니다. 그분들께는 음악을 들으러 나와 계 시는 것만도 힘드셨을 텐데 들어주시고 웃어 주시는 모습이 저의 마음에도 깊은 울림으로 남았습니다. 사실 호스피스병동에는 전문 연 주자분들을 모시고 하는 음악회도 종종 있는 데요. 연주 실력은 덜하지만 실제 의료진, 교 직원들이 각자의 유니폼을 입고 환자분들을 위해 서툰 솜씨로나마 연주하는 저희 공연이 환자분들 사이에서는 더 반응이 좋다는 감사 한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또 최근에 공연을 하면서 느낀 점은, 함께 모여 하는 합주가 참 조화롭다는 것이었습 니다. 연주를 하다가 제가 실수하고 놓치는 부분이 생겨도 합주 중에는 다른 악기 소리 들과 어우러지기에 크게 들리지 않고, 밖에 서 듣는 관중들은 어설픈 실수 소리를 잘 듣 지 못하신다는 것이었어요. '잠시 실수를 해 도 바로 돌아와서 음률에 같이 합류하면 연 주가 물 흐르듯 다시 잘 흘러가는 게 현악 합 주의 조화로움이구나' 하고 마음에 와 닿았 습니다



첼로 연주를 하며 느낀 점은?

음악은 단순한 취미 그 이상으로 위안과 동기부여를 주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병원 이라는 공간에서, 환자분들과 함께 음악을 통해 공감하고 기쁨과 슬픔을 나누는 일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교감이 있고 또 어렵게 만 느껴졌던 신부님, 동료들과 함께 선율을 맞추다 보면 음악이라는 매개를 통해 마음과 많은 감정들이 전달되는 걸 느껴요

또 예전엔 너무 힘든 일이 있거나 화가 날 때 누군가에게 뒷담화를 하며 스트레스를 풀 었다면, 지금은 음악이 제 정서적 배출구가 되어줍니다. 퇴근길에 성가나 첼로 연주를 듣거나 첼로 연주를 하려고 첼로를 안고 있 으면 그 안에 저에게 해주는 위로도, 답도 모 두 있음을 깨닫습니다. 제가 예전에 바이올 린을 하는 후배에게 자극받았듯이 저의 이런 모습이 또 누군가에게는 악기를 배울 수 있 는 동기부여가 될 수 있지 않을까요? 음악결 사대의 문은 열려 있고 더 많은 사람들과 악 기가 모여 풍요로워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주위 동료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 씀이 있다면?

예전에 딸아이가 저에게 "엄마는 첼로 같 은 느낌이 있어."라고 말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참 기뻤고 오래도록 마음에 남 았는데, 말 그대로 첼로 선율처럼 누군가에 게는 묵직한 위로가 되는 관리자, 따뜻한 선 배, 신뢰할 수 있는 동료로 기억되기를 바랍 니다. 다시 첼로를 꺼내들게 해주신 신부님 과 함께하는 소중한 동료들에게 진심으로 감 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이 작은 울림 이 제 안의 묵혀있던 선율을 다시 깨웠고, 그 울림은 어느새 기쁨이 되어 삶의 일부가 되 었습니다.

마지막으로, CMC의 모든 분들이 자신을 충전할 수 있는 취미 하나쯤은 꼭 품고 살아 가시길 바랍니다. 음악, 그림, 글, 무엇이든 나의 마음을 어루만질 수 있는 것과 함께라 면 우리는 더 오래, 더 건강하게, 그리고 더 기쁘게 이 길을 걸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우 리 모두가 하느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조금 더 즐겁고 풍요롭게 살아가길 소망하며 여러 분이 하루하루가 사랑과 편하로 가득하기 기 도드립니다.







후원자분들의 따뜻한 마음 의학 발전과 돌침

2024년에도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을 위해 많은 사랑과 관심을 보내주신 후원자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 다. 지난해에도 후원자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과 함께 후원회 사무국 앞으로 기부금이 접수되었습니다.

환자를 돌볼 의료인으로 거듭날 후배를 위해 미주 간호대학 동문이 건축기금을 모교에 흔쾌히 보내왔습니다. 포기하려던 환자의 손을 놓지 않는 의료진의 헌신 덕분에 일상으로 돌아 간 환우들이 병원의 다른 환자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이 이어지 길 바라며 기부금을 전달했습니다.

미래 세대를 위해 나눔을 실천하는 부모들의 기부도 이어졌습니다. 아기의 첫 생일에 다른 환아들이 건강하게 가족의 품으로 돌아가도록 기도하며 기부하는 '첫 돌 기부'와 주변에 나눔과 사랑을 베풀 줄 아는 사람으로 자라길 바라며 아이의 생일 마다 기부하는 '기념일 기부'도 계속되었습니다.

이처럼 후원자분들의 사랑과 나눔으로 지난 2024년 한 해 동안 10,181,803,814원의 기부금이 납입되는 결실을 맺었습니다. 우리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명에 공감하며 후원자분들이 보내주신 응원과 관심은 누군가에게 생명의 희망이 되고, 도움이 필요한 곳곳으로 크고 작은 손길을 뻗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실천하며 후원 자분들의 숭고한 뜻을 잊지 않고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천하는 모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에 우리의 의지와 감사의 뜻을 담아 2024년 기부금 모금과 사용현황을 지면으로 공유하여 드립니다.

31.7% **10.8**% 시설(건축) 및 기타(위임), 현물 발전기금 한눈에 보는 CMC 2024년 기금 현황 8.9% 2024년 1월 1일 ~ 2024년 12월 31일 장학(교육)기금 **8,725,346,579**원 약정 금액 납입금액 **10,181,803,814**원 **11.0%** 7,710,646,410₉ 사용 금액 연구기금 37.6% 사회공헌기금 ※ 백분율 : 납입액 기준

시설(건축) 및 반저기근



분야 ▶ 옴니버스 파크 건립기금, 병원발전기금, 교실·임상과·센터 발전기금, 의과대·간호대·대학원 발전기금

·약정액 | **2.707.043.567**원

·납입액 | 3.226.425.905 원

·사용액 | 3.708.294.627 원

장학(교육)기금



분야 ▶ 의과대 · 간호대 장학기금, 대학원 장학기금 총 수혜 학생 169명

· 약정액 | **660.638.760** 원

• 납입액 | **905.927.686** 원

· 사용액 | **685.528.158** 원

연구



분야 ▶ 연구소·임상과·센터

• 약정액 |

• 납입액 |

• 사용액

을 생명존중의 가치를 실런하는 **복으로 보답**하겠습니다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 후원 안내



기부 순서

당신의 **기부**를 특별한 가치로 만들어 드립니다.









LHO

납입

...

후원 문의

- **Q** 02-2258-7992~3, 7995~6
- cmcfund@catholic.ac.kr
-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 222 별관 1층 발전기금팀

기부의 가치



기부금 100% 지정 분야 사용





부속병원 이용 시 예우 제공 (금액에 따라 내용 상이)



도너스월, 아너스 갤러리를 통한 기부자 기억과 기념

세제 혜택

후원 상담 ■■

- * 가톨릭중앙의료원에 출연하시는 기부금은 관련 세법에 따라 진료, 교육, 연구 분이는 **특례(법정)기부금**으로
- 사회공헌 분야는 **일반(지정)기부금**으로 처리됩니다.
- * 당해년도 기부금 한도가 초과된 금액은 향후 10년 이내 이월 공제 가능합니다.
- * 상속재산을 기부하는 경우 기부금 전액에 대하여 상속세가 면제됩니다. (단, 상속 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기부에 한함)

해외 기부

* 미국 납세자의 경우 미국 연방정부 국세청(IRS) 승인 NPO를 통해 세금 감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Friends of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Inc.

- (C) 347-409-2869 /
- ⊕ E-mail. pasajohn@gmail.com

기부금영수증 발급

- * 기부금영수증은 국세청 홈택스 전자기부금영수증을 통해 발행하고 있습니다.
- * 국세청 홈택스에서 실시간 발행 요청이 가능하여 홈택스에서 직접 발급도 가능합니다.
- * 기타 영수증 관련 사항은 가톨릭중앙의료원 발전기금팀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제도 시행 안내

2025년 1월 1일부터 기부금영수증이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자기부금영수증으로 발급됩니다. 기존처럼 가톨릭중앙의료원 발전기금팀으로 연락주시거나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행 요청이 가능하여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직접 발급도 가능합니다. 전자기부금영수증 발행을 통하여 후원자분들께서는 별도로 기부금영수증 제출하지 않고도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반영 및 소득(법인세) 등 신고증빙자료로 활용 가능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 로그인하여 기부 내역을 한눈에 실시간 조회가 가능합니다.



너 연구기금

.,061,667,500 원

,118,457,500 원

477,071,532 원



사회공헌 기금



분야 ▶ 불우환우돕기 기금, 해외의료선교 기금, 다문화 · 이주민 · 난민 돕기 기금, 국내 자선 기금

·약정액 | **3.133.898.252** 원

·납입액 3.829.035.623 원

· 사용액 | 2.666.063.593 원

기타(위임),



분야 ▶ 기금 위임 및 현물 기부 ※현물 기부 물품은 납입 즉시 모두 사용됩니다.

·약정액 | **1.162.098.500** 원

·납입액 | **1.101.957.100** 원

·사용액 | **173.688.500** 원

NO. **2314**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 소이청소년과 다기관 협력으로 탁월한 연구 역량 입증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우수포스터상 4개 부문 CMC 석권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 소아청소년과 의료진들이 지난 4월 11일에 열린 '제75회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수포스터상 수상을 휩쓸었다. CMC 소아청소년과는 우수포스터상 총 10개 부문 중 ▲감염 ▲신경 ▲내분비 ▲면역류마티스 4개 부문에서 수상하는 쾌거를 거뒀다.

이번 성과는 두 가지 의미를 지닌다. 소아청소년과 의료진과 의과대학 기초의학교실 교수진이 함께하는 다기관·다분야 협력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는 점, 그리고 CMC의 소아 청소년 진료 분야 전문 역량이 우수하다는 게 입증된 점이다. 소아청소년과학교실 정낙균 주임교수(서울성모병원 소아 청소년과)는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환아들에게 최 적화된 맞춤형 치료를 제공하는 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소감 을 밝혔다.

부문	수상논문	저자
감염	소아다기관염증증후군(MS-C)에서 간과될 수 있는 대식세포활성증후군	이진, 이수영 (인천성모병원 · 부천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신경	소아 뇌전증 및 약물 난치성 뇌전증의 유병률 및 발병률 추세 : 전국 인구 기반 연구	이주영, 최아름, 김석일, 유일한 (은평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가톨릭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성빈센트병원 소아청소년과)
내분비	단일 세포 RNA 염기서열 분석을 통한 터너 증후군 환자와 정상 여성, 그리고 그레이브스병 여성 환자에서의 말초혈액 단핵세포 유전자 발현 비교 연구	심수연, 배은하, 박수진, 김성언, 김슬기, 안문배, 김신희, 백인철, 조원경, 조경순, 정민호, 김태규, 서병규 (가톨릭대 의과대학 소아청소년과학교실, 미생물학교실,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면역류마티스	폐포자충 폐렴을 초기 증상으로 발현한 선택적 면역글로불린 M 결핍증	임정우, 이수영, 이혜진, 정대철 (대전성모병원 · 부천성모병원 · 서울성모병원 소아청소년과)



서울성모병원

1기인증연구중심병원선정 글로벌융합연구선도

혈액/면역질환·디지털 임상·정밀재생의료 3대 특화 플랫폼 중심 연구 혁신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1기 인증 연구중심병원으로 선정됐다. 서울성모병원은 2028년까지 의 료와 연구의 융합을 기반으로 한 글로벌 연구중심병원으로의 전환을 본격화한다.

'세계적인 첨단 의료를 구현하는 글로벌 연구중심병원'을 비전으로, 사회적 가치를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연구중심 거버넌

스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 온 병원은 ▲보건의료 연구사업화 거버넌스 확립 ▲지속가능한 연구개발사업화 체계 구축 ▲개 방형 플랫폼 기반의 사업화 체계 고도화 ▲글로벌 선도 연구를 통한 사회적 가치 구현이라는 4대 추진 목표를 추진해 왔다.

또한 주요 경쟁력으로 의생명산업연구원, 포스텍-가톨릭대의생명공학연구원, 의과대학 등이 한데 모여있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산학연병 복합단지로서의 장점을살려기초연구에서 융합연구를 거쳐 임상 적용되는 전 과정을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수행하는 것이 핵심 전략이다. 이를 위해 가톨릭중앙의료원과 의과대학의 역량을 통합 연계하는 연구 거버넌스의 체계화를 목적으로 연구수행-연구지원-행정체계 기능을 강화해 온 바 있다. 특히 대형 제약사와 유망한 바이오 스타트업들이 다수 입주하여 산학연병이 실시간 협업 가능한 원스톱 클러스터 '옴니버스 파크'가 2022년 5월 개관하여 구심점으로 자리 잡았다.

중점 연구 분야로는 서울성모병원의 특화 분야로 알려진 '혈액/면역질환', '디지털 임상', '정밀재생의료'의 3대 연구 플



랫폼을 기반으로 7개 세부 분야(▲혈액질환 ▲난치성 자기면역, ▲유전체 ▲빅데이터 인공지능 ▲스마트 의료기기 ▲인공장기 오가노이드 ▲세포치료)에 집중할 예정이다. 이에 더하여 개방형 실험실을 통해 외부 연구자들에게 연구 시설을 제공하며 협력 연구를 활성화하고, 국가 전반의 보건의료산업발전에 기여하는 오픈 이노베이션(Open Innovation)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다른 그림 찾기

서로 다른 부분 3곳을 찾아보세요

응모하기



서로 다른 3곳을 체크해 사진 촬영하신 후 QR코드를 인식해 응모해 주세요. (2025,5,22,까지) 정답자 중 추첨을 통해 각 30,000원 상당의 배달 상품권을 보내 드립니다.

지난호 정답 및 당첨자

김*우 박*혜 홍*신

▶ 당첨자분들께는 휴대폰으로 개별 연락드립니다.



"캄보디아에 전한 사랑의 손길"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최근 캄보디아 프놈펜에 위치한 '코미소 클리닉'을 방문해 해외 의료봉사 활동을 진행하며 현지 저소득층 주민들에게 따뜻한 사랑를 전했다. 이번 봉사는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회공헌 조직인 '가톨릭메디컬엔젤스(CMA)' 가 주관했으며, 산하 병원의 의료진과 교직원 20명이 함께했다. 내과, 외과, 소아청소년과의 진료과목을 중심으로 총 789명의 환자가 의료서비스를 받았으며, 특히 환자의 상태에 맞춘 초음파 · 엑스레이 검사 및 간단한 외과적 시술을 통해 현지 주민들의 건강 개선과 회복을 도왔다.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 최첨단인공지능장비로

최신 의료 패러다임 선도

의정부성모, AI 기반 MRI 장비 도입 인천성모. AI 기반 CT 장비 업그레이드

가톨릭대학교 부속병원들이 최첨단 AI 기반 의료영상장비 를 도입하고, 업그레이드를 진행하며 정밀 영상진단 분야의 경쟁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AI 기반 의료영상장비는 고해상 도 영상 촬영이 가능해 정밀 영상진단의 정확도와 속도는 물 론 환자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

의정부성모병원은 독일 SIEMENS사의 AI 기반 MRI 장비인 'MAGNETOM Vida 3.0T'를 도입하고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 갔다. 이는 AI 기반 영상 재구성 기술인 Deep Resolve Gain, Deep Resolve Sharp를 비롯해 K-space 기반 딥러닝 기술인 Deep Resolve Boost, Deep Resolve Swift Brain 등을 탑재한 고성능 장비로, 기존 MRI 장비로는 구현이 어려 웠던 고해상도 영상을 신속하게 획득할 수 있게 됐다.

또한 BioMatrix Respiratory Sensor와 Cardiac Sensor 가 함께 적용되어 있어, 별도의 장비를 인체에 부착하지 않고 도 호흡과 심박동을 자동으로 감지할 수 있어 검사 과정이 더 욱 간편하고 쾌적해졌다.

인천성모병원은 국내 상급종합병원 최초로 최신 CT 장비 '애퀼리언 원 프리즘(Aquilion ONE PRISM)'의 소프트웨어 업그레이드를 성공적으로 완료했다. 고해상도 AI 기술의 적용 부위를 넓히고 검사 범위를 더욱 정밀하게 설정해, 기존보다 적은 방사선량으로 고화질 영상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기존 관상동맥 검사에만 적용되던 초고해상도 AI 재구성 기술



▲인천성모병원의 '애퀼리언 원 프리즘(Aquilion ONE PRISM)' 구동 모습

이 복부와 폐 검사까지 확대돼 다양한 질환을 보다 정밀하게 진단할 수 있게 됐다.

두 병원 모두 도입한 최첨단 AI 기반 의료영상장비를 적극 활용해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박차를 가할 계획 이다



여의도성모병원

전립선비대증 최신 치료 장비 '리줌 시스템' 도입

절개 · 마취 없는 최소 침습 치료 회복 빠르고 성기능 보존에 유리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이 최근 전립선비대증 치료 를 위한 최신 의료장비 '리줌 시스템(Rezum System)'을 도입 해 본격 운영에 들어갔다.

리줌 시스템은 수증기 에너지를 이용해 비대해진 전립선 조 직을 제거하는 최소 침습 치료 장비다. 요도를 통해 장치를 삽 입한 뒤, 고온의 수증기를 조직에 주입해 세포를 파괴하고 전 립선 부피를 점차 줄이는 방식이다.

절개나 전신마취 없이 시술이 가능하며, 대부분 입원이 필 요하지 않다. 회복이 빠르고, 성기능 저하나 요실금 등의 부작 용 위험도 낮아 환자 만족도가 높다.

전립선비대증은 60대 남성의 약 절반, 85세 이상 남성의 90% 이상이 겪는 대표적 배뇨 질환이다. 배뇨 곤란, 빈뇨, 야 간뇨, 잔뇨감 등이 주 증상이며, 방치 시 방광 기능 저하와 다 양한 합병증으로 이어질 수 있다.

기존 치료는 약물요법을 먼저 시행하나, 반응이 없거나 증 상이 악화될 경우 수술이 필요하다. 그러나 전신마취, 긴 입원 기간, 성기능 저하 등 수술에 대한 부담으로 치료를 미루는 경 우가 적지 않다. 리줌 시스템은 이러한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여의도성모병원 비뇨의학과는 전립선 질환 진료 분야에서 다년간의 경험과 임상 노하우를 보유하고 있으며, 이번 리줌 시스템 도입을 통해 시술의 안전성과 환자 삶의 질 향상에 기



▲'리줌 시스템(Rezum System)'으로 전립선비대증 환자를 치료하는 모습

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김선욱 비뇨의학과 교수는 "리줌 시스템은 절개와 마취 없 이 전립선 조직을 안전하게 치료할 수 있는 최신 치료법"이라 며 "회복이 빠르고 성기능 보존에 유리해. 수술을 망설이는 환 자들에게 좋은 선택지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2025년 후기 '일재양성기금' 수혜자 공모

'인재양성기금'은 가톨릭교회의 생명 존중 사상에 입각하여 생명윤리 관련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학술 발전 및 생명 존중 문화 확산에 기여할 인재를 양성하고자 제정된 기금입니다.



학비 장학금 지원 분야

- ▶ **가톨릭 신자**로서, 국내 · 외 대학원 재학생 또는 입학예정자
- ▶ 생명윤리 관련 인문사회 과학 분야(생명윤리학, 철학, 사회학, 법학, 신학 등) 학문을 전공하는 자
- ▶ 교내 또는 타 기관의 장학금을 수혜 받지 않는 자 (BK21 등 국가지원금 포함)



논문작성비 지원 분야

▶ **가톨릭 신자**로서, KCI에 등록된 연구자 또는 국내·외 대학원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가톨릭 생명윤리에 입각한 인간 생명의 절대적 가치와 존엄성의 가치를 드러내는 내용의 논문 작성을 계획하고 있는 자(이 · 공계 실험논문 제외)



▶ **가톨릭 신자**로서, 생명윤리 관련 분야 국내 · 외 단기연수나 연구기관이 주최하는 국제 학술대회에 참석하여 생명의 절대적 가치와 존엄성에 관한 연구 발표를 하거나 단기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 (단, 2025. 9. 1. ~ 2026. 2. 28. 중의 연수/학술대회)

공모기간 2025. 4. 1. ~ 2025. 6. 30

제출방법

이메일 접수 후 등기우편 접수

이메일: vitavia@hanmail.net

주 소: (04537)서울시 중구 명동길 74 천주교서울대교구청 생명위원회

제출서류 홈페이지(www.forlife.or.kr)에서 다운로드

기타문의

천주교 서울대교구 생명위원회 사무국 ☎02-727-2352







CMC 단신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 확장 이관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조혈모 세포은행은 최근 대구파티 마병원 제대혈제제의 이관 처로 선정되며 공간을 확장 하고 5,393건의 이식용제대

혈제제를 추가적으로 보관·관리하게 됐다. 이번 이관을 통해 가톨릭조혈모세포은행은 12,594건의 비혈연 간 조혈모세포를 환자들에게 공급할 수 있게 되어 국내 국가 지정 제대혈은행에 서의 28%를 점유하게 된다.

호스피스연구소, AI 시뮬레이션 개발 협력



가톨릭대학교 호스피스연구 소는 최근 AI 개발 전문기업 ㈜지미다와 AI 기술을 활용 한 생애말기 대화형 시뮬레 이션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협력의향서를 체결했다. 양 기관은 이번 산학협력을 통해 향후 3년간 'AI 표준환자를 활용한 생애말기 대화형 시뮬레이션 프로 그램 개발과 적용'이라는 과제를 중점적으로 추진하게 된다.

여의도성모병원

성모자선회, 부활 맞아 노숙인에 식품 전달

여의도성모병원 성모자선회는 부활절을 맞아 지난 4월 17일 남 대문 · 서울역 인근 노숙인을 대상으로 식품 키트 250세트를 전 달했다. 이번 나눔은 부활의 기쁨을 어려운 이웃과 함께 나누기 위한 것으로, 교직원들로 구성된 성모자선회가 자선기금을 마 련해 매년 시행하고 있다. 식품 키트는 지역 사회 수요와 영양을 고려해 훈제 닭고기, 훈제 바비큐, 바나나, 쌀국수, 라면 등 총 14 종으로 구성됐다.

의정부성모병원

숭고한 생명 나눔의 '나눔사랑길' 진행



의정부성모병원은 최근 뇌 사 장기기증자의 마지막 길 을 기리고 생명 나눔의 숭고 한 의미를 되새기는 '나눔사 랑길' 행사를 엄숙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했다. 나눔사랑길은 장기기증자의 희생을 기리고, 기증자와 유가족에 대한 깊은 예우를 표하기 위해 마련된 의식 으로, 병원 의료진 및 직원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한 가운데 기증 자의 마지막 길을 함께했다.

의정부교육지원청과 위기학생 위한 MOU

의정부성모병원은 최근 경기도 의정부교육지원청과 위기학생 전문치료기관 연계치료 지원 사업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 결했다. 이번 협약은 의정부 지역 초·중·고등학교에서 심리 적, 정서적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을 조기에 발견하고, 정신의학 전문의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학교 생활과 학 업 적응을 돕기 위해 마련됐다.

부천성모병원

몽골 의료진 초청 연수 성료



부천성모병원이 최근 몽골 의료진을 대상으로 4주간 해 외 의료인 연수를 실시했다. 이번 연수는 2025년 경기도 해외 의료인 초청 연수 프로

그램의 일환으로 진행된 것으로, 몽골 국립외상센터 신경외과. 순환기내과 의사 2명에 대해 뇌종양, 뇌졸중, 뇌혈관질환 수술, 시술 참관, 고혈압 및 심혈관질환에 대한 정밀검사와 진단법, 심 혈관중재술 등에 관한 교육이 진행됐다.

부천시와 의료 · 돌봄 통합지원 MOU



부천성모병원은 최근 부천 시와 '의료 · 돌봄 통합지원 대상자 의료비 지원' 업무협 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부천시에 거주하는 통합돌

봄 대상자가 필요한 검사와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 원하고, 퇴원 환자에게 지역 사회 통합돌봄 서비스를 연계해 건 강한 일상 복귀를 지원하는 데 목적이 있다.

은평성모병원

지역 사회 아동·청소년·청년 지원 확대



은평성모병원은 최근 은평자 립준비청년청, 꿈나무마을 파 란꿈터 · 초록꿈터, 아동푸른 센터와 함께 지역 사회 아동, 청소년, 청년을 대상으로 의료

비 지원 확대를 위한 진료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은평성 모병원은 ▲진료비 지원 및 의료서비스 제공 ▲질병 예방 및 신속 한 의료 개입 ▲지속가능한 건강 관리 체계 마련을 약속했다.

대전성모병원

교직원 헌혈행사로 사랑나눔 실천



대전성모병원은 최근 원내 취약계층 환자 지원을 위한 '2025년 상반기 교직원 헌혈 행사'를 실시했다. 대전성모병 원은 혈액 부족 상황 해소와

헌혈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을 위해 매년 교직원을 대상으로 헌 혈 행시를 실시하고 있다. 교직원들이 기증한 헌혈증은 대전성모 병원에서 수혈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위해 사용될 예정이다.

동정



*기관별 / 가나다 순

대한남성과학회 해외학술상 수상



서울성모병원 비뇨의학과 배웅진 교수 연구 팀이 비침습적 고주파 온열요법이 만성 전립 선염/만성 골반통 증후군에 효과적이라는 사 실을 과학적으로 입증하며 대한남성과학회 해외학술상 기초 부문을 수상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를 토대로 임상 시험을 통해 임상 현장에서의 유 효성과 안전성을 검증할 계획이다.

우수신진연구 선정



서울성모병원 순환기내과 이관용 교수 연구 팀이 '유체-구조물 반응모델을 이용한 경피 적 대동맥 판막 치환술의 최적 시술 방식 시 뮬레이션 모델 개발' 연구로 과학기술정보통 신부의 '개인기초연구사업 우수신진연구'에

선정됐다. 이번 연구는 향후 TAVI 시술의 표준화 및 정밀 의료 발 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보건의 날' 국무총리 표창



여의도성모병원 뇌건강센터 정신건강의학과 임현국 교수가 최근 열린 보건복지부 '제53회 보건의 날' 기념식에서 국무총리 표창을 받았 다. 임 교수는 치매 분야의 학술적 기여와 활 발한 연구 활동, 조기검진사업, 대국민 교육,

지역 사회 연계 인식 개선 캠페인 등 국민 인식 개선 사업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상을 받았다.

'결핵 예방의 날' 대통령 표창



인천성모병원 호흡기내과 김주상 교수가 최 근 질병관리청 주관 '제15회 결핵 예방의 날' 기념행사에서 대통령 표창을 받았다. 김 교 수는 결핵 치료, 전파 차단뿐만 아니라 잠복 결핵감염 사업의 과학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국가 결핵관리 사업에 헌신하고 국내 결핵 퇴치에 기여한 공 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

'암 예방의 날'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



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파트장 김 현경 간호사가 최근 '제18회 암 예방의 날' 기 념식에서 보건복지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김 파트장은 권역별호스피스센터 운영을 총괄 하고, 호스피스 전문기관 지원과 교육을 통해

의료 서비스 질 향상에 기여했으며 지역 사회 말기 암 환자 돌봄 인식 개선에 힘쓴 공로를 인정받아 이번 표창을 받았다.

경기도간호사회장 표창



성빈센트병원 간호부 유진미 UM이 확고한 간 호전문직관을 바탕으로 간호사업 발전에 기 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경기도간호사회장 표 창을 받았다. 유 UM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경 기도병원간호사회의 간호 정책 발전과 간호

사 위상 향상에 적극적으로 기여했으며, 다양한 지역 사회 기관 봉사활동 및 기부 활동을 지속해 온 바 있다.



www.cmc.or.kr



www.youtube.com/CMCMedicalNews





성빈센트병원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 소아청소년 환자 위한 1억 원 기부

2022년에 이어 두 번째 기부금 전달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에 탁구 국가대표 신유빈 선수 가 소아·청소년 환자를 위한 의료비 지원금 1억 원을 쾌척했 다. 신유빈 선수가 성빈센트병원에 기부금을 기탁한 것은 지난 2022년에 이어 두 번째다.

이번 기부는 신유빈 선수가 에스와이코스메틱스의 광고 모 델로 발탁되면서 받은 모델료 중 1억 원을 전달한 것으로, 에스 와이코스메틱스도 신유빈 선수의 뜻에 기꺼이 동참했다.

성빈센트병원은 이에 신유빈 선수, 에스와이코스메틱스 김 중환 대표, 성빈센트병원장 임정수 콜베 수녀, 의무원장 정진영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기부금 전달식을 열었다. 더불어 성 빈센트병원은 신유빈 선수와 에스와이코스메틱스 김중환 대 표에게 감사패를 전하며, 기부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표했다.

신유빈 선수는 "지난 의료비 후원 이후 성빈센트병원으로부 터 후원비가 의미 있게 사용되었고, 아이들이 건강을 되찾았다 는 소식을 들었을 때, 그 어떤 것보다 행복하고 뿌듯했던 것 같 다."며 "이번 후원금도 꼭 필요한 곳에 전달돼 더 많은 아이들 이 건강과 미소를 되찾을 수 있길 바란다."고 소감을 전했다.

성빈센트병원장 임정수 콜베 수녀는 "바쁜 일정 속에서도 도 움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선한 영향



력을 전하는 신유빈 선수에게 감사하다."며 "기부금은 신유빈 선수가 보내준 귀한 뜻에 따라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외 소아 · 청소년 환자들을 위해 사용하겠다."고 인사를 전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부서원과 함께 펼치는 영성나눔활동

여의도성모병원 의무기록팀 7년째 기부 이어져

가톨릭대학교 여의도성모병원 의무기록 팀이 최근 1년간 부서원들과 모이온 성금을 취약 환자 지원을 위해 기부했다.

여의도성모병원 의무기록팀의 기부는 지 난 2019년부터 시작되어 벌써 7년째로 총 3,995,000원을 기부했으며, 기부금은 취약계 층 환자와 노숙인 지원을 위해 사용되었다.



여의도성모병원 의무기록팀은 "취약계층을 위해 성금을 모으는 활동을 통해 부서원들 과 영성을 실천하고 있으며 이러한 나눔이 선한 영향력으로 이어지기를 희망한다."고 기 부 소감을 밝혔다.

건강하고 행복한 세상을 위한 나눔

신준식 기부자. 1억 원 추가 기부로 발전기금 총 2억 원 후원

자생한방병원 설립자 신준식 박사가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과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의 발전을 위하여 최근 총 1억 원을 추 가 기부했다. 기부금은 옴니버스 파크 건립기금과 서울성모병원 혈액병원 발전기금으로 사용될 예정이다.

신준식 기부자는 서울성모병원 혈액내과 민창기 교수와의 인 연에 감사의 뜻을 표하며, 후원을 결심했다고 전했다. 신 기부자는 이미 2023년 3월에도 옴니버스 파크 건립기금으로 1억 원을 기부

한 바 있으며, 이번 후원으로 가톨릭중앙의료원에 총 2억 원을 기부했다.

그는 같은 독립 유공자 후손과 형편이 어려운 꿈나무들을 위한 장학사업 등 도움이 필 요한 사회 곳곳에 사회공헌활동으로 아름다운 선행에 앞장서고 있다.



2025년 3월 신규 약정자 명단



가톨릭중앙의료원						
• 공통사용 불우환우돕기						
하현석	5,000,000원	익명1	30,000원			
익명2	30,000원	익명3	60,000원			
• 생명 존중 기	금(의료원위임)					
하현석	10,000,000원	김학욱	10,000원			
서주영	100,000원	서주영	10,000원			
익명1	500,000원	익명2	50원			
• 공통사용 🖁	불우환우돕 기(소아)					
익 명	100,000원					
강정해	5,000,000원					
• 김석지 불의	우환우돕기	홍서희	3,000,000원			
	. – . – .					
대학(성의교경	정)					
대학(성의교정						
• 옴니버스 エ		노덕희	1,000,000원			
• 옴니버스 エ 신 준 식	파크					
• 옴니버스 ፤ 신 준 식 이동건	파크 50,000,000원	이래석	1,000,000원			
• 옴니버스 ፤ 신 준 식 이동건	1)크 50,000,000원 2,000,000원 1,000,000원	이래석	1,000,000원 1,000,000원			
• 옴니버스 I 신준식 이동건 조성연	파크 50,000,000원 2,000,000원 1,000,000원	이래석	1,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 옴니버스 I 신준식 이동건 조성연 (주)더블유연	파크 50,000,000원 2,000,000원 1,000,000원 밴메이치 당학기부금	이래석	1,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 옴니버스 I 신준식 이동건 조성연 (주)더블유언	파크 50,000,000원 2,000,000원 1,000,000원 밴에이치 당학기부금 참재단	이래석	1,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 옴니버스 I 신준식 이동건 조성연 (주)더블유언 • 간호대학 ? (재)정산정학	파크 50,000,000원 2,000,000원 1,000,000원 밴에이치 당학기부금 화재단 전기금	이래석	1,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1,000,000원			

재단법인 구원장학재단

• 돈암장학금

노덕희

(재)삼공	-			24,4	144,000원			
• 생명대학원 장학기부금					명	5,0)00,000원	
CMC 신용협동조합						10,0)00,000원	
• 신협사	• 신협사회공헌재단 장학금							
사회적협동조합 신협사회공헌재단)00,000원	
• 외과학:	교실 발	전기금		진형	형민	9,0)00,000원	
• 우덕재[단장학	글	(재)	우덕지	忙	8,	148,000원	
• 의대동	창회 장	학금						
(재)가톨	릭대학:	교의과대학	총동문	르회징	학자	단 27,	140,000원	
• 의대발전기금(위임)					명	2,0)00,000원	
• 일반대학원 장학금					명	5,0)00,000원	
서울성도	병원							
• 병원발	전기금(위임)						
신준식 5,000,000원					영호	3,0)00,000원	
• 성모자	선회							
김태숙	매월	50,000)원	문형	护	매월	30,000원	
오인숙	매월	10,000)원	조영	녕	매월	5,000원	
양상근	· 당상근 1,000,000원			최등	5환		100,000원	
익명1 1,000,000원					익명2 3,000,00			
• 위임(기부자별관리)								
김용규 1,000,000원			노환진		1,000,000원			
오범석 500,000원					재	50,0)00,000원	
• 위임(선입선출관리) 익					명		50,000원	
최성현 5,000,000원					선윤	매월	30,000원	
• 현물(지	정기부	금)						

10,000,000원 조성연

• 삼공장학재단 장학금

10,000,000원

이웃백스테이크하우스 (주)케이엔유 15,510,000원 • 비뇨의학과 연구가금신평호 • 사회사업팀 발전가금최성현 • 순환기내과 연구가금신평호 • 어린이학교 발전가금 신하오/신만섭 • 연구가금(위임) • 혈액병원 발전가금 • 흥부외과 연구가금			이모레파 백소율 이근오 신준식 신평호	2,000,000원 이근오 1,000,000원 신준식 45,000,000원		
여의도성도	_병원					
• 여의도성	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l			
김태정	김태정 1,000,000원		신경수	100,000원		
여의도성	모병원	의무기록팀		4	120,000원	
전선철	2	2,000,000원	정수진	1,0)00,000원	
익명1	į	5,000,000원	익명2		100,000원	
• 소아청소	년		양수희	6	800,000원	
양찬우		600,000원	임병재	1,0)00,000원	
임서규		1,000,000원	임은규	임은규 1,000,000원		
의정부성모병원 • 성모자선회						
의정부성모병원 병동계간호팀				24	100.000원	
• 호스피스 발전기금			김령경	,	10,000원	
		. _ 5,000원	김현우		5,000원	
마은정	매월	10,000원	박소윤	매월	10,000원	
박지나	매월	20,000원	최진아	매월	10,000원	

• 의정부성	성모병원	불우환우돕기	허 희	500,000원
부천성모	병원			
• 성가자(<u>너</u> 호			
한현식 환	한우 치료	비모금 행사 4	4명	5,253,000원
부천성도	방사선경	종양학과		30,000원
강민영	매월	10,000원	김관영	매월 20,000원
김민지	매월	10,000원	박종민	매월 10,000원
배정원	매월	10,000원	염수빈	매월 10,000원
이아영	매월	10,000원	이정윤	매월 10,000원
전유라	매월	5,000원		
은평성모	병원			
• 병원발견	전기금(우	임)		
비사여	10	വസ സാല	아나여	20 000ല

건ㅠ니	매설	5,000년					
은평성도	병원						
• 병원발	• 병원발전기금(위임)						
박상엽	박상엽 10,000,000원			20,000원			
• 은평성	• 은평성모자선회			매월 5,000원			
김미희	매월	5,000원	김지영	매월 10,000원			
송미수	매월	5,000원	이문진	매월 5,000원			
이은영	매월	5,000원	장정매	매월 5,000원			
최유숙	매월	5,000원	송재훈	300,000원			
양은경		70,000원	은평성되	교수녀원 500,000원			
• 호스피스 발전기금							
송미수	매월	20,000원	조은경	매월 20,000원			
• 은평성모병원 자선기금							
김사랑		400,000원	유선미	1,000,000원			

가톨릭중앙의료원 후원회사무국 발전기금팀

이동건

재단법인 돈암장학회

10,000,000원

TEL. 02-2258-7992~3. 7995~6 FAX. 02-2258-7994 E-mail. cmcfund@catholic.ac.kr 카카오톡. "CMC 발전기금" 검색



18,000,000원

4,074,000원

20,000,000원

NO. **2314**



산불 피해 이재민에 사랑과 연대의 성금 전달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가톨릭중앙의료원, 서울성모병원 성모자선회 기부 이어

가톨릭대학교 가톨릭중앙의료원은 최근 전국에 발생한 대규모 산불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재민을 돕기 위해 구호 성금 1천만 원을 기부했다. 이번 기부는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

록 돕기 위한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이다.

가톨릭중앙의료원의 사회공헌 조직 가톨릭메디컬엔젤스는 천주교 안동교구를 통해 성금을 전달하고, 향후 피해 지역의 복구 상황에 따라 추가적인 지원을 진행할 계획이다. 가톨릭중 앙의료원은 '생명존중'과 '인간사랑'이라는 가톨릭 정신을 바탕 으로, 자연재해와 같은 긴급 재난 상황에서 신속한 지원을 통 해 도움이 필요한 이들에게 따뜻한 손길을 내밀고 있다.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힘든 시기를 함께 견디고 극복하겠다는 연대의 의미를 담고 있다.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또한 산불 피해 이재민을 위해 사랑과 나눔의 손길을 뻗었다. 지난 4월 5일,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상 임이사 이경상 바오로 주교가 천주교 안동교구를 방문해 법인 이사장인 정순택 베드로 대주교 명의로 화재 성금을 전달했다. 이경상 주교는 성금을 전달하며, "이번 산불로 피해를 입은 이 재민들을 돕는 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또한 서울성모병원 성모자선회도 산불 피해 복구를 위해 천



▲ 왼쪽부터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업관리실장 천만성 신부, 상임이사 이경 상 주교, 안동교구장 권혁주 주교, 학교법인 가톨릭학원 사무처장 이재열 신 부, 보건정책실장 지상술 신부, 안동교구 사무처장 김종섭 신부

주교 안동교구에 5천만 원의 기부금을 전달하며 손을 보탰다. 성모자선회는 교직원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자선 모금 단체 로, 이번 기부는 단순한 일회성 후원이 아닌 조직적이고 지속 적인 나눔의 실천이다.



성빈센트병원 경기도 최초 심방세동 최신 치료 '펄스장 절제술' 도입

비정상 조직만 선택적 제거 가능 짧은 시술 시간 · 조직 손상 최소화

가톨릭대학교 성빈센트병원이 경기도 최초로 차세대 심방 세동 치료법인 '펄스장 절제술(Pulsed Field Ablation, PFA)' 시술을 도입했다.

심방세동은 가장 흔한 부정맥 종류 중 하나로, 심방에서 비정상적인 전기신호가 생성돼 심실이 빠르고 불규칙하게 뛰는

질환이다. 뇌졸중이나 심부전의 발생 위험이 높아, 약물치료에 반응이 없는 경우 시술적 치료를 고려하게 된다.

성빈센트병원이 도입한 펄스장 절제술(PFA)은 이러한 심방 세동의 최신 치료법 중 하나로, 전기장을 이용해 심방세동을 일으키는 심장의 비정상 조직을 선택적으로 제거한다. 기존의 고주파 전극도자 절제술이나 냉각풍선도자 절제술과 달리 열 이나 냉각 에너지를 사용하지 않아 주변 조직의 손상을 보다 최소화할 수 있고, 시술 시간도 짧다는 장점이 있다.

성빈센트병원에서는 지난 4월 3일 심장혈관센터 황유미 교수가 심방세동 환자에게 펄스장 절제술을 시행, 첫 시술을 성공적으로 마쳤다.

성빈센트병원은 펄스장 절제술 도입으로 심방세동 환자들에게 보다 안전하고 효과적인 치료를 제공할 수 있게 돼 환자 만족도가 대폭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황유미 교수는 "펄스장 시술은 기존 심방세동 시술의 단점을 보완한 최신 치료법으로, 심방세동 환자들에게 새로운 선택지 가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그동안 쌓아온 치료 노하우를 바탕



으로 환자들에게 더욱 정밀하고 안전한 맞춤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한편, 성빈센트병원은 심뇌혈관질환에 대해 보다 신속한 진 단과 정확한 치료, 관리를 통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원스톱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지난 2023년 심뇌혈관병원을 개원 해 운영 중에 있다.

인천 성모

'호스피스 예비전문가 과정' 모집

가톨릭대학교 인천성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는 '제3기 호스피스 예비전문가 과정' 교육생을 모집한다. 호스피스 돌봄은 말기 환자와 그 가족이 겪는 신체적 · 심리적 · 사회적 · 영적 고통을 완화하기위해 의료진을 비롯해 성직자, 요법치료사, 약사, 영양사 등 다양한 분야 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이번 교육은 오는 6월 12일부터 7월 3일까지 매주화, 목요일 총 7회 진행된다. 권역별호스피스센터는호스피스 교육을 통해 전문가를 발굴하고 호스피스에 대한 이해도와 관심을 높이기 위해 지난 2023년부터 매년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관심이었는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5월 25일까지 인천성

모병원 권역별호스피스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한편 인천성모병원은 2019년 권역별호스피스센터로 지정되며 국민 인식 제고를 위한 교육과 홍보를 수행하고, 호스피스 전문기관의 역량 강회를 위한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



위기임산부 상담기관 MOU 체결

기톨릭대학교 대전성모병 원은 최근 대전가톨릭 사회 복지회 대전·세종지역 위기 임산부 상담기관과 위기임산 부와 아동의 안전한 보호체 계 마련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대전성모병원은 이번 협약 으로 ▲위기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위한 지원 및 협력 ▲지역 사회 내 지원이 필요한 위기임산부와 아동 추천 및 연계 ▲기관 간 업무 관련 사례 공유 및 상담 지원 ▲보호 대상자의 복지 · 권리 증진을 위한 상호 협력체계 유지 등을 실행, 위기임산부 지원에 힘을 보탤 계획이다.

강전용 대전성모병원장은 "지역 의료기관으로서 경제적·심리적·신체적 사유 등으로 출산 및 양육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산부의 안전한 출산을 지원하고, 안정된 양육 환경 보 장에도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www.cmcseoul.or.kr

기적의 다섯 빛, 서울성모에서 팡! 피어나다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소아청소년과, 생명을 품고 사랑으로 키우다 자연임신 오둥이의 '팡팡레인저' 탄생부터 완전체 귀환까지







지난해 9월, 서울성모병원 산부인과와 소아청소년과의 협력 아래, **자연임신으로 다섯쌍둥이가 탄생**했습니다.

임신 당시부터 가족과 의료진은 이 특별한 아이들을 '팡팡레인저'라는 애틋한 대명으로 불렀습니다. 팡팡 튀는 생명력과 사랑스러운 에너지로 모두의 희망이되었던 아이들은, 세계적으로도 보기 드문 기적 같은 출산을 통해 세상에 나왔습니다. 임신 초기부터 철저한 다학제 협진과 정밀한 계획으로 산모와 아이모두의 건강을 지켜낸 감동적인 여정이었습니다.

그 중 가장 작고 여렸던 넷째 새별이는 6개월간의 입원 치료 끝에 2025년 3월, 3.9kg의 건강한 모습으로 퇴원하며, 다섯 남매가 드디어 한 집에서 만나게 되었습니다. 서울성모병원은 생명의 시작부러 끝까지, 사랑으로 함께합니다.













당시의 건강 파트너! 여의도성모병원을 만나는 쉬운 번호 **L** 1661–7575



가톨릭대학교 의도성모병원



www.cmcsungmo.or.kr



NO 절개·마취 전립선비대증 치료,

- ✓ 절개 없는 시술 전신마취나 절개 없이 시술 가능해 몸에 부담이 적습니다.
- ✔ 짧은 치료 시간. 빠른 회복 수술보다 치료 시간이 짧고 회복이 빠릅니다. 당일 일상 복귀도 가능합니다.
- ✔ 성기능 보존 효과 우수 기존 수술에 비해 사정장애, 성기능 저하 등 부작용이 적습니다.
- ✓ 입원 없이 외래 시술 가능 단기간 외래 시술로 가능해 대부분 입원이 필요 없습니다.
- ✔ 중장년 남성에게 최적화된 치료 60세 이상 남성에게 흔한 전립선비대증에 안전하고 효과적인 최신 치료법입니다.











www.cmcujb.or.kr

의정부성모병원, 최첨단 AI MRI 장비 도입!



최첨단 시 기술 적용되어 고해상도의 영상 고속 촬영 가능 경기북부 MRI 검사 서비스 질 대폭 향상







건강, 그 이상의 행복 실현 가톨릭대학교 천성모병원



www.cmcbucheon.or.kr

나에게 맞는 비만 치료는 따로 있습니다!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치료, 수술치료 등

가톨릭대학교 부천성모병원 비만대사수술

비만이란?

과다한 체지방을 가진 상태를 말합니다. 보통 체중이 많이 나가면 비만이라고 생각하지만 비만이 아니어도 근육이 많은 사람은 체중이 많이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신체비만지수(체질량지수)'로 비만 여부를 판단합니다.

체질량지수(BMI)

체중(kg) ÷ 신장(m²) = 신체비만지수(BMI) 25kg/m²이상 비만 35kg/㎡이상 고도비만으로 진단

비만·암·대사질환의 삼각관계



협진 기반 개인별 맞춤 솔루션을 제공하는 비만대사수술클리닉





가톨릭대학교 평성모병원



www.cmcep.or.kr

'께 지료합니

모병원 폐암협진팀

정밀 항암 치료 및 방사선 치료



호흡기내과 / 심장혈관흉부외과 / 종양내과 / 방사선종양학과 / 핵의학과 / 영상의학과 / 병리과



심장혈관흉부외과 안세하교수

[오전] 수 [오후] 월 폐암, 폐결절, 종격동 종양, 기흉, 흉부외상, 최소침습 흉강경 수술

최소침습 환자 맞춤형 폐암 수술

- 구멍(2.5cm) 하나로 수술하는 단일공 흉강경 폐암 수술
- 폐암 단계를 정확히 예측하여 폐를 최대한 보존하는 수술
- 늑간신경 마취요법과 빠른 흉관 제거로 통증/합병증 최소화
- 고난도 단일공 흉강경 '복잡 폐구역 절제술' 국내 최다 시행
- 항암 치료를 병행하는 진행암에 대한 풍부한 수술 경험



심장혈관흉부외과 문영규교수

[오전] 화, 목 [오후] 화

폐암, 간유리 결절 및 폐결절, 종격동 종양, 단일공 흉강경 수술, 로봇수술